<특별활동\_대면수업 대체과제\_3-2>

2013-12815 이동주

스포츠의 개념은 신체활동을 초월하는 놀이적 의미의 고전적 개념과 신체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놀이 차원의 광의적 개념, 그리고 신체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제도화된 경쟁적 활동 차원의 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고 있다.

스포츠의 본질적 요소는 첫째, 놀이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 놀이성(유희성)의 정도에 따라서 놀이성 지향 스포츠와 전문성 지향 스포츠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이 양방향에 스포츠가 존재하며 놀이성은 스포츠를 스포츠답게 만드는 하나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한다. 둘째, 스포츠는 규범에 의한 조직적 성향의 제도화된 환경에서의 경쟁으로부터 비 제도화된 환경에서의 경쟁까지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과 심판의 중재가 동반되는 경쟁적 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신체적 활동에 대한 정의를 하면 지정의가 동반되고 체력과 기술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신체적 활동(정적·동적 대근활동)이며, 이 신체적 활동으로 결과가 결정된다. 넷째, 스포츠는 문화적 활동으로 그 활동의 주체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므로 투계, 투견, 투우도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경쟁적인 활동이지만 인간의 활동과는 무관하여 스포츠로 간주될 수는 없다.

출처 : 박주한(Ju Han Park), <스포츠의 개념 연구>, 한국체육철학회, 2012.